

스테반의 설교

본문: 사도행전 7:1-53

스테반의 반대자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유민들이었다(6:9). 자유민이란 자유롭게된 노예들과 그들의 후손이라는 말이다. 이들이 회당에서 스테반과 논쟁을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일 것이다(6:9). 이들이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 스테반을 모해 하여 말하기를 스테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역한 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스테반의 긴 설교는 **거룩한 곳, 참 성전이요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1.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

스테반은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인가를 증거한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긴 것은 성전이 지닌 건축학상의 장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 하셨기 때문이다.**’ 몇 개의 시편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매우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27: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이다.** 스테반은 네명의 주인공들이 지배했던 시대를 골라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 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7: 2-8).

2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스테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와 그 가족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3)고 말씀 하셨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나 나타나셔서 말씀 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 하신 분이시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순례여행의 각단계를 인도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 그다음에는 야곱에게, 그 다음에는 열두족장에게 하셨다(8).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가 있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 하셨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이다.**

2. 요셉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7:9-16).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에서 총리까지 되었다.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과도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근이 든 동안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원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과 애굽의 근처인 브엘 세바에서 밤에 보이신 환상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 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를다시 데려 오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장소가 어디든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함께 계신 분이시다.**

3.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7:17-43)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 40년씩 3시기로 나눈다. 처음 40년은 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심으로** 살아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22).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혈기로 자기 백성을 도우려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되었다,

두 번째 40년은 목자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까이 간 모세에게 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다. 비록 그가 있는 땅은 실패와 좌절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확실히 보셨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셨다”(34)

세 번째 40년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은 모세를 소개하기를 자신과 같은 예언자로서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37)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들과 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산 말씀** 곧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 준 사람이라고 하였다(37-38). 이 대단한 특권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스데반은 강조한다. 그 조상들과 같은 똑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다.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나,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나, 광야 생활에 나타났을 때 모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이라는 것이다.**

4.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7:44-50).

백성들이 광야에 가지고 있었던 증거의 장막(44)이 처음으로 언급 된 것은 네 번째 시기, 다윗의 시대 에서였다, 장막과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스데반은 이 둘 중의 어느것의 품위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그 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일부-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와 관련이 있다. 더구나 **장막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44절).** 그리고 나서 조상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장막을, 이방 사람들을 쫓아 내고 그들이 찾아한 땅에 가지고 들어왔다(45절 상). 오랫동안 그것은

국가생활의 중심점으로서 심지어 다윗 시대까지 그 땅에 남아 있었다(45절 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욱 튼튼하고 영구적인 집을 짓게 해 달라고 청했다(47). 그러나 그의 요청은 거절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47절) 그러나 장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웅대한 성전이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48절)**기 때문이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이해 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왕상 8:27)**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 되지 않는 순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교 적인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2), 하나님은 요셉이 십지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9),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오셨으며 그러므로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30,31),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48절)이다. 그렇다면 성경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한 장소에 국한 되지 않으며, 어떤 건물도 그분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분이 땅에 어떤 집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거하시는 **그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분은 엄숙한 언약에 의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언약에 따라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분도 계신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다고(마태복음 12:6) 말씀 하셨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할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막 14:58)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성전을 파괴시킨 죄인들이다.

II.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거짓 증인들은 두 가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비난 했다. 즉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다(6:13). 그들은 성전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율법을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스테반이 율법을 거역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그의 조상들과 같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말한다.

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테반은 모세는 참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산 말씀 곧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가역했던 조상들처럼 그들이 지금 율법과 예언자들을 거역한다고 책망하고 있다. 7:51-53절을 읽어보자.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담대하게 의회 의원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말한다. 완악하다는 말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적용시켰던 말이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51)고 말한다. 스데반은 그들이 **성령과 메시아와 율법을 거스리는 죄를 범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했던 그의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 하는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그 의인(예수님)을 죽였다.** 또한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53). 스데반은 메시아가 오신 것은 성전을 대신하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거절 했다는 것이다. **스데반은 자기를 변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칼빈이 말한대로 성전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성취를 가져온 것이다.** 스데반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한 것이다. 그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면서 거룩한 순교를 한 것이다.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얼마나 멋이있는가?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이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처럼 복 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